



미 증시, 델타 변이발 경기 둔화 불안감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8 일(목) 미국 3 대 증시는 ECB 의 물가 목표 상향에도, 주간실업지표 부진(33.7 만, 예상 35.0 만), 델타 변이 대유행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장 초반 1% 넘는 급락세를 연출. 다만, 델타 변이 발 경기 둔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장 초반 이후 낙폭을 축소(다우 -0.8%, S&P500 -0.9%, 나스닥 -0.7%), 업종별로는 금융(-2.0%), 산업재(-1.4%), 소재(-1.4%), 커뮤니케이션(-1.1%) 등 전업종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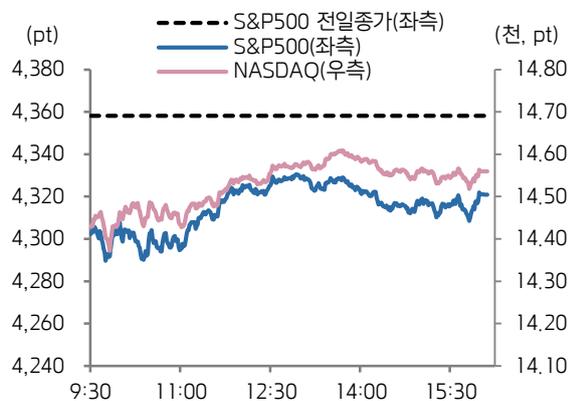
ECB 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상향하기로 결정(기존에는 2%로 바로 아래). 또한 인플레이션 산출 시 주택 가격을 포함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은 18 년만에 처음으로 단행된 것이며, 이는 물가가 2% 이상 상승한다고해도 일정기간 용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

미국 증시 평가

전거래일 10 년물 금리가 장중 1.25%대까지 급락하는 등 최근 시장 금리 하락의 배경으로 타이트한 수급 여건, 기대 인플레 하락 등 이외에도 델타 변이 발 경기 둔화 우려가 지목. 실제로 미국 신규 확진자의 약 50% 델타 변이였으며, 일본도 국가 비상상태를 다시 선포하고 도쿄 올림픽도 무관중 운영기로 결정. 이처럼 전세계적인 델타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다시 자라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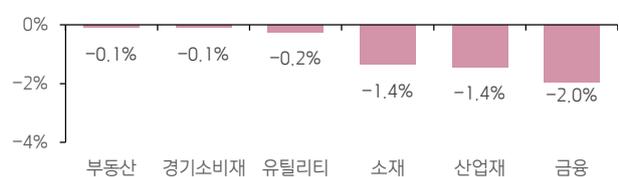
그러나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더라도 치명률은 이전 코로나 대유행 사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려면 국가 차원에서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을 실행해야 하나, 작년 팬데믹 당시에 봉쇄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영구적인 경제 손실 리스크에 직면했던 경험을 상기. 향후 미국 정부가 부분적 봉쇄정책 정도만 실행할 것으로 보이며,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서 국한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 결국 최근 시장이 델타 변이로 하락 압력을 받았던 것은 시장참여자들이 미국 증시의 지수 레벨과 속도에 대한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차익실현 명분을 찾는 과정에서 유발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인플레이션, 연준 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발 경기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S&P500 일중 차트(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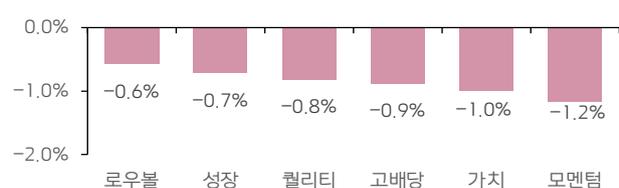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8일 업종별 추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8일 스타일별 추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0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7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4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 단계 격상 발표 여부 2.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 따른 시클리컬 업종들의 추가적인 주가 조정 가능성 3. 장 중 발표되는 중국 물가지표 결과를 통한 중국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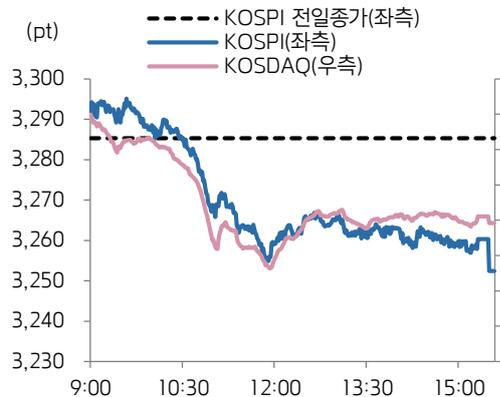
한국 증시 리뷰

8 일(목) 코스피는 예상에 부합했던 6 월 FOMC 의사록 내용에 힘입어 상승 출발. 그러나 옵션 만기일에 따른 현선물 시장 변동성 확대 속 국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 원/달러 환율 급등 여파가 외국인과 기관의 장중 동반 순매도세를 심화시킴. 이로 인해 카카오, NAVER 등 언택트주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1.2%).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2.2%), 통신(+0.4%), 의약품(+0.1%) 등이 강세, 의료정밀(-3.0%), 종이목재(-2.8%), 운수창고(-2.5%)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90 억원, 6,270 억원 순매도, 개인이 1 조 980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증시 급락 충격에 영향을 받아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디디추싱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과의 기술 분쟁 격화 가능성, 중국의 경기 모멘텀 손실 우려 등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 국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대 단계 격상 가능성도 내수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델타 변이라는 약재는 전거래일에 선진국들보다 먼저 주가에 반영되어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2 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며, 밸류에이션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있음을 감안 시 금일 델타 변이 약재의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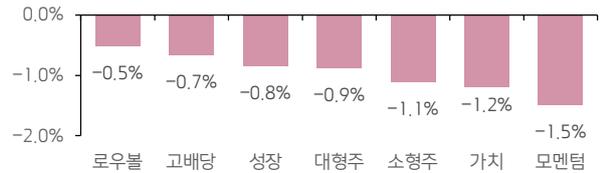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8일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7월 8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